

희곡의 기계번역에 대한 고찰*

— 희곡 『버스 정류장』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김 지 은**

목 차

1. 서론
 - 1) 기계번역에 관한 논의
 - 2) 한국어로의 기계번역
2. 『버스 정류장(车站)』
 - 1) 작품 및 등장인물
 - 2) 등장인물 특성과 관계 따른 번역 요소
3. 『버스 정류장(车站)』의 기계 번역의 비교
 - 1) 기계 번역의 결과
 - 2) 구체적 사례 비교
 - 3) 소결
4. 맺음말

국문초록

기계번역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그 번역 품질도 날로 개선되면서 번역학계에서도 기계번역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특히 문학 번역은 기계번역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고 하나 기계번역의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문학의 기계번역 가능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기계번역 후의 포스트에디팅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지침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조교수

다. 희곡은 소설과 시 등 문학 장르와 달리 독서와 연극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장르로, 각 인물의 대사가 비교적 일상 회화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문학적 표현과 더불어 인물의 특성 파악이 번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어는 어미 변화가 크고, 성별과 나이에 따른 존칭어 사용이 발달한 언어인 만큼, 희곡의 등장인물 간 관계 파악이 번역에 선행되어야 하며, 문맥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버스정류장』의 인간번역과 기계번역 결과물을 비교하고, 희곡의 기계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기계번역의 희곡 번역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는 한편, 희곡의 기계번역에 대한 포스트에디팅 시 주목해야 할 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키워드: 종결어미, 기계번역, 파파고, 구글번역, 희곡번역, 중한 번역, 버스 정류장

1. 서론

1) 기계번역에 관한 논의

기계번역에 대한 논쟁은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파파고나 구글번역같은 소위 ‘번역기’를 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익스플로러나 크롬과 같은 인터넷 탐색기에도 자동번역 기능이 탑재되어 사용자가 접속한 웹 페이지의 내용을 자동으로 사전에 설정된 언어로 번역해준다. 이제 기계번역은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다. 번역 학계에서도 기계번역 사용을 전제로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에 대한 논의가 있고, 실제 번역 수업에서도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을 실습하기도 한다. 기계번역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기계번역 품질에 대한 논란이 큰 부분은 역시 문학일 것이다. 기계번역이 화두로 떠올랐던 초기, 국내 학계의 논의는 주로 기계번역의 오류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지금도 Vilar 외(2016), Sara Stymne(2011) 이나 양성혜(2022)와 같이 기계번역의 오류를 유형별로 분류하거나 각기 다른 기계번역 체계의 오류를 비

교 분석하는 연구가 있으나 그보다는 기계번역을 번역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문학의 문체, 혹은 문맥의 번역을 분석하고 기계번역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안미영(2020)은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차이에 따른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어휘의 등가여부, 의미의 정확성·완결성·일관성, 통사적 적절성, 화용적 적절성)을 구분하며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포스트에디팅의 방향을 제시하려 했고, 윤미선 외(2018) 역시 일반 기계번역 오류 유형을 활용하여 세부적인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듯 기계번역의 활용을 고민하는 학계의 연구가 진행 중이고 메뉴얼이나 게임 등의 로컬라이제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기계번역이 활용되고, 또 그에 대한 포스트에디팅이 논의되고 있으나, 문학의 경우 문학이 갖는 표현, 비유 등 인간의 창의력과 연관된 부분이 많아 기계번역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 시각이 많다. 때문에 기계번역을 특히나 문학 번역에 있어서는 인간의 ‘보조자’ 정도로 그 위치를 정립하고 있다. 최윤영(1996)은 문학번역 분야에서도 기계번역을 역할분담 및 보조자로서의 채용 가능성이 가까운 시 일 내에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했고, 이는 현재 ‘포스트에디팅’이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는 실현되었다. 김양순(2022)도 기계번역은 순간의 감성과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이 기계의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계 학습은 인간의 선천적인 직관을 따라갈 수도 있으며 인간번역과의 협업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학계는 기계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그럼에도 그 신속성과 편리성을 인정하여 인간번역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기계번역을 평가하고 있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문학번역에서 기계번역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앞서 언급한 포스트에디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번역의 보조자로서 기계번역을 위한 제안이라 하겠다.

한편, 문학은 정보전달의 목적보다 표현과 감정의 전달에 목적을 둔 텍스트로 인간의 창의력이 응집된 결과물이다. 때문에 문학번역은 번역가의 언어적 능력 외에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과 이를 목표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창조 능력이 필요하다. 마승혜(2018)도 문학번역을 위해 필요한 능력으

로, ‘복합적 인식 및 해석 능력’, ‘해석에 기반을 둔 선택 능력’, ‘재현 및 창조 능력’, 마지막으로 ‘독자와 소통 능력’을 꼽았다. 또한, 배유진(2022)은 아동문학의 기계번역을 분석하며 외래어·한자어 사용의 최소화, 의성어·의태어의 부각 등 독자인 아동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번역 주의사항을 기술하였다. 독자와의 ‘감정적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학의 번역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 목표 언어권의 언어 습관, 문화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한국어처럼 종결어미 변화가 다양하고, 경어가 발달한 언어 방향으로의 번역시에는 작품 등장인물의 성별, 연령, 사회적 배경, 인물 간 관계 등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번역을 하여야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희곡의 경우 이 특성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소설과 달리 서술이 없고 간략한 지문과 등장인물들의 대화 또는 독백으로 작품 전반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희곡에서 시대배경과 등장인물 간의 관계, 각 인물의 사회적 지위, 성격 등은 거의 대부분 대사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즉, 각 인물 간 발화 형식, 표현 방식 등의 차별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반 방식의 현재 기계번역은 문맥 파악에 여전히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성별, 사회적 지위, 상호간의 관계 등이 반영된 번역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승혜(2028)에서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와 구글 번역기의 번역 결과물을 비교하며 복합적 인식 및 해석 능력, 해석에 기반을 둔 선택 능력, 재현 및 창조 능력, 독자와의 소통 능력 등을 기계번역의 취약점으로 꼽았다. 그렇다면 기존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문학, 그 중 특히 희곡을 기계번역하였을 때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포스트에디팅은 물론 희곡 번역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향후 기계번역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Naver 포털의 파파고(Papago) 번역기와 구글(google) 번역기의 번역 결과물을 비교해 보고, 희곡의 등장인물 특성에 따른 기계번역의 문제점 및 포스트에디팅 방향

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2) 한국어로의 기계번역

파파고와 구글 번역은 모두 인공지능망 기반의 딥러닝 방식으로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개발사의 배경, 서비스 개시 시기, 언어별 사용 빈도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각 언어쌍에 대한 결과물에 수준 차이를 보인다. 먼저, Naver Labs에서 자체 개발한 파파고는 국내에서 개발된 번역 서비스답게 한국어-외국어, 특히 한국어로의 번역 시 가장 우수한 수준을 보이며, 영어-한국어, 영어-중국어, 영어-일본어 등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언어쌍에서도 괜찮은 번역 결과물을 내놓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프랑스어-한국어, 독일어-한국어 등의 언어쌍에서는 오역 비율이 높고, 한국어에서 외국어 방향으로의 번역에서도 오역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의견이 많다. 구글 번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높임말’ 옵션이 있어, 이 옵션을 체크할 경우 한국어로의 번역 시 높임말이 적용된다. 한편, 구글 번역은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사용인구가 가장 많은 기계번역 서비스이다. 그러다보니 수집되는 데이터양도 많아 영어-스페인어의 경우 90% 이상의 높은 적합률을 보인다. 그러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소수 언어로의 번역 경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며, 한국어처럼 맥락이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종결어미의 변화가 다양한 언어의 경우 오역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칭되는 결과치를 내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형적이지 않은 표현이나 비유, 상징적 표현 등이 다수 등장하는 문학의 ‘의외성’ 또는 ‘특수성’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어는 높임말이 상당히 발달한 언어인데, 구글 번역은 이를 일관되게 구현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국어로의 번역에서 큰 단점이다.

각 기계번역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번역 결과물이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사실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양성혜(2022)는 서-한 번역에서 파파고에서는 문단 수준의 상대적으로 긴 글을 입력했을 때 원문에 없던 숫자나 이상한 문자가 나오거나 띄어쓰기가 무시 되는 등 번역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입력한 원문 길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생략되거나 잘못 치환되는 등의 오류가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 어순이 부자연스럽거나 문어체 및 구어체가 혼용되는 현상 등을 지적했다. 한편 구글 번역에 대해서도 문체의 혼용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기술했으며 어휘적 문제 등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두 기계번역의 한국어 번역 시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경어법(敬語法)의 사용이다. 경어의 사용은 한국어에서 언어적으로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강창석(2020)은 경어법(敬語法)은 국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문법 현상이며, 경어법을 모르면 정상적인 국어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도 중대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했듯 파파고는 ‘높임말’ 옵션이 있어 전체 높임말로 변환이 가능하나 구글은 이러한 기능이 없어 일관되게 ‘높임’ 혹은 ‘낮춤’을 적용할 수 없다. 물론, 파파고 역시 ‘높임말’ 옵션을 해제하면 ‘높임’과 ‘낮춤’이 무작위로 섞여 적용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문체의 선택과 혼용이다 이는 양성혜(2020)나 안미영(2020)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이다. 한국어는 어미 변화가 발달된 언어이며, 문체 역시 이것과 연결된다. 대화에서 어떠한 문체를 사용하는가는 발화자와 대화 상대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때문에 번역 시 적절한 문체를 선택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데, 기계번역은 인물관계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

등장인물과 관련하여 한국어로의 번역에서 기계번역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이다. 이 외에도 본 논문에서 희곡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통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물론, 기계 번역에서 어순 오류나 부자연스러운 한국어 등 다양한 오류가 있으나 이는 다른 장르의 텍

스트 기계번역 시에도 나타나는 공통 문제로 본 연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급하지 않겠다.

2. 『버스 정류장(车站)』

1) 작품 및 등장인물

『버스 정류장』의 작가 가오싱젠(高行健)은 2000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문학 작가 중 한 명이다. 『버스 정류장』은 그가 베이징인민예술극원(北京人民藝術劇院)의 소속 극작가로 활동할 당시인 1982년에 집필한 작품이며, 중국판 『고도를 기다리며』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1983년에 역시 베이징인민예술극원에서 초연되었고, 그 후 독일 함부르크 등 해외에서도 상연된 바 있다. 그러나 1983년 ‘정신을 오염시킨다(清除精神污染運動)’는 명목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 상연이 중단되기도 했다. 『버스 정류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구성의 단막극이다. 나이, 성별, 직업, 사회적 배경, 버스를 타려는 사정 등이 모두 다른 8명의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의미없는 단어들을 나열하기도 하면서 엇갈리는 모습도 보여준다. 물론 극 중 인물간의 갈등이 중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물관계가 두드러지지 않는으나 ‘이름’이 아닌 ‘보통명사’를 사용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계번역이 이를 얼마나 일관되게 혹은 정확하게 번역해 낼 것인지 관찰하기가 용이하다. 『버스 정류장』의 등장인물들은 직업, 나이, 성별 등으로 일반명사로 이름을 대신한다. 마 주임 정도만 ‘성’이 있고 나머지는 이름도 성도 없이 나이와 성별, 직업 정도의 정보만 제공된다. 어떤 차림새인지, 외모는 어떠한지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다(林瑞艷, 2008:17).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말투, 호칭, 어휘의 선택, 서로 간의 관계, 서열 등이 번역에

서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작품 원문에 설정된 각 인물들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沉默的人 中年人(침묵하는 사람, 중년)
 大爺 六十多歲(어르신, 60 세 이상)
 姑娘 二十八歲(아가씨, 28세)
 愣小子 十九歲(경솔한 청년(덜렁이), 17세)
 戴眼鏡的 三十歲(안경 낀 사람 40세)
 做母親的 四十歲(어머니, 40세)
 師傅 四十五歲(숙련공, 45세)
 馬主任 五十歲(마 주임, 50세)

『버스정류장』 원문 중 발췌

위 인물들의 나이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大爺(노인) - 馬主任(마 주임) - 師傅(숙련공), 戴眼鏡的(안경 낀 사람), 做母親的(어머니) - 姑娘(아가씨) - 愣小子(경솔한 청년(덜렁이)) 순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이 모두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모두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각 인물들의 연령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임의 정도나 경어의 사용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연장자인 ‘大爺’가 등장인물 중 가장 나이가 어린 ‘愣小子’에게는 경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젊은 여성인 ‘姑娘’에게도 높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師傅, 戴眼鏡的, 做母親的 등 연배가 비슷한 그룹은 각 인물의 성격에 따라 상대방에게 온전한 경어를 쓸 수도, 혹은 반말과 경어를 은근히 섞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물관계는 경어 사용 여부는 물론, 인물이 사용할 호칭이나 표현, 종결어미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문에서는 위와 같이 등장인물에 대한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외에 등장인물의 성격, 관계 등은 오롯이 번역가가 파악하고 이를 번역에 반영

하여야 한다. 예컨대 발화 대상과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인물이라면 ‘~요’, ‘~습니다’ 등의 비교적 중립적인 종결어미를 자주 사용할 것이고, 공격적이거나 불만이 많은 인물이라면 ‘~하라’, ‘~냐’ 등 강한 어투를 사용하는 것이 어울릴 것이다. 이는 대화 상황이 일반적인 대화이냐, 언쟁이냐 등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종결어미의 활용과 경어가 발달된 한국어로의 번역은 때문에 세심한 문맥의 파악과 인물관계의 고려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등장인물 특성과 관계 따른 번역 요소

2의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희곡 등장인물의 배경과 특성,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는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어떠한 어투, 호칭, 표현 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극의 분위기 전반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번역가가 등장인물 특성 및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지 여부가 번역의 품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기계번역은 작품 전체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번역을 달리하는 기능은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버스 정류장』 속 등장인물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번역한 인간번역과 두 기계 번역 결과물을 비교하여 희곡 번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기술할 것이다.

등장인물의 대화, 이들이 시내에 가려는 목적 등을 통해 파악한 『버스 정류장』의 각 등장인물에 대한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버스 정류장』 등장인물

이름	나이	특성
沈默的人	중년	대사없음
大爺	60 대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장기에 집착하며, 버스를 타려는 이유도 장기 약속을 위해서임.
姑娘	28세	남성과 만나기 위해 시내로 가고자 함. 소극적인 면이 있고 경계심이 많으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따짐.
愣小子	17세	버릇이 없고 제멋대로 임. 시내에 가려는 목적도 단순히 요거트를 먹어보기 위해서일만큼 단순함. 불평불만이 많고 감정 기복이 큼.
戴眼鏡的	40세	아는 것이 많고, 따지기를 좋아함. 대학에 가기 위해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려함. 영어 단어를 자주 웅얼거림. 다소 예민함.
做母親的	40세	다른 사람을 챙기기도 하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음.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본인 생활에 다소 불만이 있음. 가족을 만나러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림.
師傅	45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섬.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음. 목공일을 함. 해외 무역회사의 요청으로 제자를 받으러 시내에 감.
馬主任	50세	접대를 위해 시내에 가려함. 거만하고, 으스스대길 좋아함. 공급 판매회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여기고 있음.

〈표 1〉에서 沈默的人(침묵하는 사람)은 대사가 없고 행동만 지문으로 표시된다. 그의 행동으로 보아 일부 인물의 성격을 유추해볼 수는 있으나 대사가 없고 다른 인물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의 인물명만을 분석에 포함시킨다. 그 외 나머지 각 인물들의 나이와 특성,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각 인물들 간의 감정 관계와 어휘 사용을 예측해보면, 먼저 등장인물 중 가장 나이가 많은 ‘大爺’에게 기타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높임 말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막무가내 성격의 ‘愣小子’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높임 말과 낮춤을 섞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고 으스스대는 성격인 ‘馬主任’도 높임말과 낮춤을 혼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극 중간에 馬主任과 大爺가 언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는 馬主任이 大爺에게 나이차에 적합한 경어를 일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大爺는 공격적인 성격이 아니고 장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노년층

의 캐릭터로,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은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연장자이므로 그 높임의 정도는 예사높임 정도가 되겠다. 단, 등장인물 중 나이가 가장 어리고, 제멋대로인 ‘楞小子’에게는 초반에는 높임말, 후반에는 반말을 하거나 혹은 시종 낮춤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동갑인 ‘戴眼鏡的’와 ‘做母親的’는 상호 존대가 마땅하고, 나이차가 크지 않은 ‘師傅’와 ‘馬主任’ 등 인물과도 높임말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황에 맞다. 그러나 다소 오만한 성격의 馬主任은 위 인물들에게 높임말과 반말을 섞어 하거나 심리 상태에 따라 낮춤을 높은 빈도로 할 것이며, 질서의식이 없고 제멋대로인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는 ‘楞小子’은 나이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인물에게 존대를 하되, 그 형식이 정형화되지 않는 것이 극의 진행상 어울릴 것이다. 한편, 다른 인물들과 큰 부딪힘이 없는 ‘姑娘’은 극이 끝날 때까지 등장인물의 나이에 맞춰 높임말을 사용할 것이다. 경어법 외에도 이들이 사용하는 문체나 시대 배경에 맞는 어휘 표현도 적절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상황을 기준으로 기계번역 결과물에는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지 실제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다.

3. 『버스 정류장(车站)』의 기계 번역의 비교

1) 기계 번역의 결과

파과고와 구글 기계번역¹⁾의 결과물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1) 파과고와 구글번역에 1회 입력한 원문 분량은 각 기계번역의 글자수 제한으로 인해 5,000자 이내 범위에서 마지막 문장이 끝나는 지점까지로 하였다.

〈표 2〉 기계번역 결과

	문제
1	등장인물 호칭 불일치 2인칭 지칭어 오류
2	사전적 의미는 맞으나 시대배경, 상황 등에 부합되지 않는 표현
3	문체 혼용 및 등장인물 성격과 관계에 부적합한 표현 및 문체
4	경어 사용의 오류

첫째, 호칭어 및 지칭어 불일치이다. 호칭어 불일치란, 등장인물의 호칭이 원문에서 동일하게 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하게 번역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칭어의 경우, ‘您’ 또는 ‘你’와 같은 2인칭 지칭어가 각 인물 간 관계나 나이 등에 적절하지 못하게 번역된 경우이다. 파파고와 구글 두 기계번역 모두에서 등장인물의 일반명사형 호칭·지칭어 및 2인칭 지칭어 오류가 발견되었다.

둘째, 시대 배경 및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표현 문제이다. 『버스 정류장』은 개혁개방 초기 사회주의 체제 하의 1980년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다. 때문에 그 시기에 적합한 표현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표현을 발화한 등장인물의 연령, 교육수준 등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영어 발음을 차용하는 방법과 국어 표현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표현의 경우, 작품의 시대 배경을 고려하면 국어 표현이 적합할 수 있다.

셋째, 문체 혼용 문제 및 등장인물의 성격 또는 신분에 부합되지 않는 문체 사용이다. 각 인물이 어떠한 문체를 구사하는가는 그 인물의 성격과 배경 등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성격이 급하거나 포악한 사람은 보다 거친 언사를, 유약하거나 소심한 사람은 부드러운 표현이나 종결어미를 사용할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화가 났을 경우에는 강한 어투 혹은 높임과 낮춤을 섞어 사용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 『버스 정류장』은 비록 인물 간 갈등구조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작품이나, 각 등장인물들의 성별, 연령, 직업 등 배경

이 판이하게 달라 비교적 다양한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여 그에 따른 문체를 적절히 차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특별한 계기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독자 또는 관객은 해당 인물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인물은 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동일한 대상에게 발화를 하는데 ‘~이다’, ‘~입니다’, ‘~예요’ 등 종결어미가 혼합되고, 이것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 역시 희곡 번역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넷째, 경어 사용의 오류이다. 각 인물의 연령과 성격에 맞춰 분석된 경어 사용에 맞지 않는 번역이 빈번히 보인다. 특히, 파파고의 경우 ‘높임말’ 기능을 사용하였을 시, 모든 표현이 ‘높임’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적절한 ‘낮춤’으로의 에디팅이 필요하다. 반면, ‘높임말’ 기능이 없는 구글 번역기는 높임과 낮춤이 무작위로 섞인 결과물을 내놓았다.

위 네 가지 문제점들이 파파고 및 구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2)에서 2002년에 출판된 번역본과 비교하며 희곡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시 어떠한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 상세 기술해보겠다.

2) 구체적 사례 비교

『버스 정류장』은 2002년에 한 차례 번역 출판되었다. 파파고와 구글 번역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례를 2002년 번역 출판된 인간번역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기술의 편의를 위해, 2002년 출판 번역은 ‘인간번역’으로 표기하겠다.

① 호칭·지칭어의 불일치

호칭어는 사람을 부르는 말로, 화자가 직접 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 지칭어는 남을 가리키는 말인 가리킴 말이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제 3자에게 타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에 해당된다. 호칭어와 지칭어는

가족형, 이름형, 대명사형 호칭어, 2인칭 지칭어, 직함형 호칭어 등이 있는데 (엄종란, 2019:33), 『버스 정류장』에서 호칭어는 일반명사형, 대명사형, 직함형 호칭어가 주로 등장하며, 지칭어도 역시 일반명사형 및 2인칭 지칭어가 많이 나타난다. 특히, 『버스 정류장』은 등장인물이 ‘大爺’, ‘姑娘’, ‘戴眼鏡的’ 등 특정 이름이 아닌 보통명사나 ‘수식+명사’ 형태로 되어있어 인물의 나이나 특성, 성별 등을 암시하며, 각 인물을 객관화시키고 있어 등장인물의 명칭을 정확하게 일관되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번역에서 이를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살펴보겠다.

〈표 3〉 직함형 및 일반명사형 호칭어·지칭어의 번역

호칭·지칭어	과과고	구글
大爺	할아버지	삼촌, 아저씨, 할아버지, 노인
沉默的人	침묵하는 사람, 침묵하는 자, 침묵한 사람들, 침묵한 사람, 침묵하던 사람, 침묵하는 사람들, 침묵의 사람들	침묵한 남자, 침묵의 남자, 침묵하는 사람, 말없는 남자, 말없는 사람, 사일런트 맨, 과묵한 남자, 말이 없는 남자, 침묵하는 사람들, 조용한 사람들, 고요한 사람들, 조용한 남자, 침묵하는 사람들
姑娘	아가씨, 처녀, 딸, 고모어머니, 여자, 아가씨들, 따님	아가씨, 소녀, 여자, 여보, 딸
做母亲的	어머니, 어머님, 엄마, 어머니가 되는 것, 엄마로서, 어머니 노릇을 하는, 엄마가 되실 거예요, 엄마가 된, 엄마 노릇, 어머니로서의 어머님이시여,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어머니, 엄마, 어머니들, 엄마들, 모성, 엄마의 경우
戴眼鏡的	안경 쓴 사람, 안경을 쓴 사람, 안경 쓴 분, 안경 쓴, 안경 쓴 놈, 안경 쓴 거, 안경쓴이, 안경을 쓴, 안경 쓰는, 안경 낀	안경을 쓰고, 안경 쓴 사람, 안경 쓴 남자, 안경 끼고, 안경 착용, 안경을 쓴 소년, 안경, 안경을 쓴 사람, 안경 쓰는 사람, 안경 쓴 사람들, 안경을 끼고, 안경을 쓴, Bespectacled, 안경쓰는, 안경을 쓴 남자, 안경을 쓴 젊은이들, 안경 쓴, 안경테, 안경으로, spectacled, 안경

		착용자, 안경쓰는건, 안경 쓰고, 안경 끼고 있는 사람
马主任	마주임	마부장, 마 이사장, 마 감독, Ma 이사, Ma 감독, 감독 Ma, Ma Director, 마 이사, 이사 Ma, 마 감독님, Ma, Stunned 감독, 마 실장, 마 이사장님
师傅	기사님, 사부, 스승님, 사부님, 선생님, 스승, 아저씨, 사박	기사님, 사부님, 마스터, 주인, 선생님, 스승, 사부, 주인님
楞小子	병어리, 멧팅구리, 멧칭이, 돌격하는 녀석, 망나니, 멧멍이, 덜렁이, 덜렁이 녀석, 덜렁대는 녀석, 무모한 녀석, 엉뚱한 녀석, 맹소자, 겁쟁이 녀석, 겁쟁이, 무모한 소년, 바보	멍청한 소년, 바보 소년, Leng Boy, 랭보이, 랭 소년, Leng 소년, 놀란 소년, 어리석은 소년, 랭보이, 겁쟁이, 멧칭한 녀석, 멧칭이, 기절한 소년, Leng Xiaozhi
傻丫头	바보 계집애	어리석은 소녀
老爷子	할아버지	노인, 아저씨, 노인네, 늙은이, 선생님
大姐	맏언니	아가씨, 큰 누나
老伙计	늙은 점원	아저씨
老头	영감님	선배
老人家	할아버지	늙은이, 노인, 아저씨
老头子	노인	늙은이
小伙子	총각, 젊은이	청년, 젊은이, 꼬마
大嫂子	큰언니	형수님
大婶	아줌마	아줌마
丁	정	Ding
庚	경	겐, Geng

우선, 등장인물 명칭에 대한 각 기계번역의 결과를 보면 파과고가 구글에 비해 비교적 일관되게 번역하였는데, 특히 ‘大爷’와 ‘马主任’은 각각 ‘할아버지’와 ‘마주임’으로 작품 전체에서 동일하게 번역되었다. 그에 반해 구글의 경우, ‘大爷’를 삼촌, 할아버지, 노인, 아저씨 등으로 불규칙하게 섞어 번역하였고, ‘马主任’은 성(姓)을 나타내는 ‘马’를 ‘Ma’로 번역하는 등 영어 표기를 결과물로 내놓는 특성을 보였고, 통일되게 번역된 등장인물 명칭은 없었다. 인간번역은 ‘大爷’와 ‘马主任’을 각각 ‘노인’과 ‘마

주임'으로 번역하였다. '大爺'는 일반명사형 호칭어로, 사전적 의미에서 '높은 신분의 사람', '아저씨', '삼촌', '할아버지', '노인' 등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장인물 소개에서 '大爺'를 '六十多岁(60 여세)'라고 기술하고 있고, 다른 인물들의 명칭 역시 '姑娘'이나 '師傅'처럼 보통명사로 거리감을 둔 것을 고려할 때, 인간번역의 '노인'이 가장 해당 인물을 설명하기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파파고의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남성'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내포된 가족형 호칭어의 역할도 하므로 다른 등장인물 명칭과의 균형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다 판단된다. '馬主任'의 경우, 인간번역과 파파고는 동일하게 '마 주임'이라는 '성(姓)+ 직함' 형태의 호칭어로 번역했으나 구글은 '마부장, 마 이사장, 마 감독, Ma 이사, Ma 감독' 등으로 번역하거나, 심지어 'Ma Director'와 같은 영어를 결과물로 내놓는 등 적절한 번역을 제시하지 못했다. '馬主任'에 대한 구글의 번역을 보면, '馬'가 성 씨인 것은 파악하였으나, '主任'을 표현할 적합한 한국어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주임'이라는 직함과 중국의 '主任'이 완벽한 동의어라고 보긴 어려우나, 상당한 교집합을 갖고 있으므로 인간번역과 파파고에서 선택한 '마 주임'이라는 호칭이 독자가 무리없이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표현이라 여겨진다. 한편, 직함에 대한 번역 오류는 '師傅'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어 '師傅'는 상황에 따라 '사부' 또는 '스승'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어떠한 일을 숙련되게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일상 회화에서 때로는 택시 운전기사를 '師傅'라 칭하기도 하고, 요리사를 '師傅'라 칭하기도 한다. 글의 문맥과 상황의 의해를 통해 적절한 의미를 선택하여 번역해야 함에도 구글과 파파고 모두 적합한 번역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인간번역은 '師傅'를 '숙련공'으로 표현하였는데, 극 중에서 '師傅'가 목공 일을 하는 기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숙련공' 또는 '기술자' 등의 번역이 적절하다 하겠다.

한편 '沉默的人', '戴眼镜的', '做母亲的' 등과 같은 구조의 명칭에서 인간번

역은 각각 ‘말 없는 사람’과 ‘안경잡이’로 번역하였고, 특히 ‘做母亲的’은 원문 중 해당 인물에게 아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이 엄마’로 번역하였다. 이에 반해 파파고와 구글 모두 이들 인물의 명칭을 동일하게 번역하지 못하고 단복수형이 혼합되거나 영어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불규칙하고 부정확하게 번역된 결과물을 내놓았다. <표 3>에서 그 외의 일반명사형 호칭어 또는 지칭어에서도 번역이 통일되지 않거나 잘못된 표현이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 2인칭 호칭어·지칭어의 번역

호칭·지칭어	파파고	구글
你	당신, 너, 네가	당신, 너, 널
您	당신, 선생님	당신, 너

2인칭 호칭어·지칭어 번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你’와 ‘您’의 적절한 번역이다. 중국어에 비해 경어가 발달한 한국어는 높임과 낮춤의 단계가 예사높임, 아주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 등과 같이 중국어보다 세분화되어있다. 때문에 원문의 동일한 ‘你’와 ‘您’라도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번역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大爷’가 ‘戴眼镜的’를 지칭할 때 ‘你’를 사용하는데, 이를 ‘너’라는 아주낮춤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비록 ‘大爷’가 ‘戴眼镜的’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이들은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심리적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자네’ 등과 같은 예사낮춤이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您’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래 예시를 보면,

예)

做母亲的：这就叫成家过日子。我那口子呀，就知道捧个书本，什么也不会。手帕子总算小吧，都洗不干净。找对象，可别找这样的书呆子。人家会活动的，早把家属都弄进城了。

大爷：您可是自找的，就不会让他调到郊区来？每礼拜就这样等车、挤车，受得了吗？

위 예시에서 ‘大爷’가 ‘做母亲的’를 지칭하는 밑줄 친 ‘您’을 파파고는 ‘선생님’이라는 일반명사형 호칭어를 사용하는데, ‘大爷’가 ‘做母亲的’보다 20 여 살 더 많고, ‘大爷’의 발화 내용을 보아 ‘선생님’이라는 아주높임에 해당되는 지칭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듯 2인칭 대명사형 호칭·지칭어는 각 인물간의 관계와 발화 내용이 고려되어야 하나, 파파고와 구글 두 기계번역 모두 불규칙하게 ‘너’, ‘당신’ 등을 무작위로 사용하였다. 2인칭 대명사형 호칭·지칭어 번역의 오류는 파파고보다 구글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높임말 기능의 유무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 5〉 호칭 번역 오류 빈도

지칭·호칭어	파파고	구글
직함형 및 일반명사형 호칭어·지칭어 번역	296회	761회
2인칭 호칭어·지칭어 번역	53 회	74회

〈표 5〉에서 파파고와 구글의 호칭·지칭어 번역 오류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직함형 및 일반명사형 호칭·지칭어에서 구글의 오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파파고에서는 통일되게 번역된 ‘大爷’와 ‘马主任’²⁾이 구글에서는 다양한 번역 오류로 나타난 영향도 크다. 그 외에 두 기계번역의 오류 빈도수가 크게 차이났던 것은 ‘姑娘’이다. 파파고는 ‘처녀, 딸, 고모어머니, 여자, 딸들’ 등 총 31회의 오류가 발견된 반면, 구글은 ‘소녀, 여자, 아가씨들 따님’ 등 총 146 회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특히 ‘여자’와 ‘소녀’³⁾로 번역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원문의 인물소개에 ‘姑娘’의 나이가 28세로 되어있어 ‘소녀’는 적절하지 않으며, ‘여자’는 ‘姑娘’의 나이와 상황을 설명하기에 지나치게

2) 구글의 ‘大爷’와 ‘马主任’ 번역 오류는 각각 156회와 96회이다.

3) ‘소녀’와 ‘여자’ 모두 각각 71회

범위가 넓은 표현이다. 인간번역은 ‘아가씨’로 번역하였는데, ‘姑娘’은 소개받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도시에 가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인물의 극 중 설정에 부합되는 번역이다.

② 시대 배경 및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표현

『버스 정류장』은 1980년대 초에 발표된 작품으로, 작품의 시대 배경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있지는 않으나, 극 중 인물들이 자유롭게 취미활동이나 영어 교육을 받는 등 생활 여유를 드러내는 것, ‘大前門’⁴⁾이라는 담배 브랜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문화대혁명 이후의 시기로 작품 배경 역시 1980년대 초로 추정된다. 1980년대 초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창기로 신문물이나 외국어의 유입이 아직은 많지 않은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번역 시에도 시대 배경을 고려한 어휘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발화자의 연령과 예상되는 교육 수준, 경제적 배경, 성별 등은 물론,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표 6> 시대 배경 및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번역

과과고	구글
26회	84회

<표 6>에서 과과고는 26회, 구글은 총 84회의 시대 배경 또는 상황에 맞지 않는 번역이 발견되었다. 아래 예시를 통해 구체적 사례를 기술하였다.

예 1)

大爷：(回头望) 还没影儿呢。这礼拜六下午，大家伙都要进城，车还就越来越少。您要迟走一步，赶上那@“高峰”，什么词儿！大伙都下班了，那节骨眼上，您就瞧那热闹吧，都生疔子硬挤，可您还得有那劲儿呀。像咱这年纪的，没门儿！咱总算赶在前面了，那提前下班走人的

4) 1980년대까지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담배 브랜드.

主儿还没动窝呢！咱午觉都没敢睡。（松了口气，打个哈欠）要不是今儿晚上城里有事，非去不可，咱说什么爷不凑这㉔“高峰”。（掏出香烟）你抽烟不？（沉默的人摇摇头）不抽烟的好。

예 2)

大爷：是乘客倒过来为他们服务！没人在车站上总等着，能显派出他们吗？您就耐着性子等吧。

做母亲的：有这㉕功夫，一大盆脏衣服都洗完了。

姑娘：您这星期六赶回去，还得洗衣服？

먼저, 예 1)은 작품 첫 장면에서 ‘大爷’가 ‘沉默的人’에게 하는 대사이다. ㉔의 ‘高峰’은 교통이 혼잡한 시간을 가리킨다. 파파고와 구글은 모두 ‘피크’라고 번역하였고, 인간번역은 ‘러시아워’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라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大爷’가 60 세가 넘는, 당시로서는 고령의 노인임을 감안하면 ‘피크’나 ‘러시아워’같은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국공내전 상황 속에서 보냈을 ‘大爷’가 생활 속에서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만큼 영어나 외국 문물에 익숙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공산 정권 하의 중국은 외국어를 발음 그대로 쓰기 보다는 그 의미를 중국식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예 2)의 ㉕ ‘功夫’에 대해 파파고는 ‘사이’로, 구글은 ‘스킬’이라고 번역하였다. ‘功夫’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에 투자한 시간’, ‘재주’, ‘기술’, ‘어떠한 일에 들인 노력’, ‘중국 무술 쿵푸’ 등으로 다양한데, 앞서 ‘大爷’가 “您就耐着性子等吧(좀 참고 기다려보시지요.)”라고 한 것으로 봐서 문맥상 ‘功夫’는 ‘어떠한 일에 투자한 시간’을 가리키며, 인간번역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시간’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구글은 앞 발화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功夫’를 ‘재주’ 또는 ‘기술’의 의미로 파악, ‘스킬’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맥락에

도 맞지 않을뿐더러, 40세 주부로 설정되어 있는 ‘做母亲的’의 인물 설정과도 배치되는 번역이라 하겠다.

예 3)

戴眼镜的(轻声地)：你怎么了？

师傅：饿的吧？俺包里还有块㉠煎饼。

大爷：肚子疼？

马主任(对观众高声地)：大夫在哪里？那位懂医的给看看呀！

예 3)에서 ‘师傅’는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은 ‘姑娘’에게 배고프냐며, 본인이 ‘煎饼’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파파고와 구글 모두 ‘煎饼’을 ‘팬케이크’로 번역하였다. ‘煎饼’이 중국의 전통적인 아침식사 메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유사한 형태의 ‘팬케이크’를 대체어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1980년대 초 중국이라는 시대적 배경과는 거리가 있으며, 특히, 이 단어를 발화하는 화자가 목공 기술자인 ‘师傅’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팬케이크’는 지나치게 이질적이다. 인간번역은 ‘떡’으로 번역하였는데, 가독성을 위해서는 좋은 전략이나 이 경우 중국이라는 무대배경과 ‘떡’이라는 한국 전통식품 사이의 괴리감이 문제로 남는다. 음역 후 각주를 활용하거나 혹은 ‘밀전병’, ‘전병 부침’ 등 유사 표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报考的年龄’를 ‘수능 나이(구글)’로 번역한다던가, ‘电动的小汽车’를 ‘전기차(파파고, 구글)’로 번역하는 등 배경 또는 시대와 맞지 않는 번역은 다만 일부 어휘일지라도 극의 흐름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등장인물의 캐릭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문체의 혼용

넓은 의미에서 문체는 ②에서 기술한 적절한 표현과도 연결되나,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 ‘문장의 개성적 특색’, 즉 희곡에서 각 등장인물의 ‘어투’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는 종결어미를 활용하여 서법 및 어투, 문체 등을 드러낸다. 등장인물의 나이, 성별, 성격, 직업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어미는 달라져야 할 것이며, 이는 극의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계번역은 이를 적절히 표현해내지 못했다.

〈표 7〉 문체(어투) 번역 오류

파파고	구글
203회	429회

〈표 7〉에서 파파고보다 구글이 더 많은 오류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동일한 인물이 발화했음에도 문체가 통일되지 않는 문제점이 파파고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예 1)

戴眼鏡的：你怕你自己的命运？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합니까?(파파고)

자신의 운명이 ㉠두려우신가요?(구글)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이 두려워요?(인간번역)

姑娘：不知道，我什么都不知道。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파파고)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구글)

모르겠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인간번역)

파파고와 구글의 번역 ㉠ 부분을 보면 파파고는 ‘~니까’를, 구글은 ‘~요’를 종결어미로 번역하였다. ‘戴眼鏡的’는 대학에 가고자 버스를 기다리는 인물로, 문득 문득 영어단어를 웅얼거리기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30세 남성으로 설정된 그에게 파파고의 ‘~니까’나 구글의 ‘~요’ 모두 부적합한 번역은 아니다. 그러나 ‘姑娘’이 28세 여성이라는 점과 극 중 감정적

동요를 쉽게 보여줬던 캐릭터라는 것을 고려하면 ㉞의 파파고 번역과 같이 ‘~니다’보다 구글의 ‘~요’의 어투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인간번역 또한, ‘姑娘’의 어투를 ‘~요’로 통일하였다.

예 2)

大爷(激动得哆嗦)：您……您看晚报吗？

선생님… 보세요, 석간 신문이요?(구글)

당신…… 당신 석간신문 보시우?(인간번역)

大爷：您知道那位叫李墨生的吗？

저 이묵생이라는 사람 아세요?(구글)

그럼 이묵생을 아시오?(인간번역)

(중략)

马主任：可您是顾客呀！你戒得了烟？

하지만 당신은 고객입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까?(구글)

당신은 고객이잖아요! 담배를 끊을 수 있던가요?(인간번역)

大爷：试过好几回。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구글)

여러 번 시도했었지.(인간번역)

马主任：您不知道抽烟有损健康？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거 모르세요?(구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거 모르세요?(인간번역)

大爷：知道呀。

알겠습니다.(구글)

알지.(인간번역)

위 예 2)는 구글 번역의 일부로, 밑줄 친 ‘大爷’의 발화들을 살펴보면 어투가 통일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大爷’는 장기를 취미로 삼는 60 세가 넘

은 노인으로, 버스 정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상황과 대상에 따라 ‘~군’, ‘~소’, ‘~요’ 등 예사 낮춤 또는 예사 높임 정도가 적절한 어투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합니다’처럼 격식화된 표현은 ‘大爺’의 발화 내용이나 인물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 실제로 인간번역은 ‘~지’의 어미를 사용하여 ‘大爺’의 나이와 위치를 부각시켰다. 다만, 인간번역에서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马主任’이 ‘大爺’에게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두 사람의 관계나 ‘马主任’이 ‘大爺’에게 사용하는 어투를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马主任’이 비록 자기자랑을 하고 다소 오만한 면이 있는 인물이나, 무뢰한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당신’보다는 ‘영감님’이나 ‘어르신’ 등 명사형 호칭이 전체 문체와 어우러질 수 있다 하겠다.

④ 경어 사용의 오류

경어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우리말의 경어는 상대방의 나이, 신분, 성별, 친밀도 등에 따라 호칭이나 종결어미를 달리하여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기계번역에서 역시 이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표 8〉 경어 번역 오류

파파고	구글
93회	188회

〈표 8〉과 같이 파파고에 비해 구글의 경어 사용 오류 빈도가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가장 큰 원인은 ‘높임말 기능’ 유무로 추측된다. 다만, 이 ‘높임말 기능’은 모든 내용을 모두 ‘높임’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대화 상대에 따라 ‘낮춤’으로의 포스트에디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파파고에서 발견된 93회의 오류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버스 정류장』은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형식이므로 전체 내용을 높임말로 번역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각 인물의 나이차와 감정 상태 등에 따라 예사 낮춤이나 낮춤 또는 예사 높임 등을 적절히 구사해야 하는데, 그러한 섬세함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높임말 기능이 없는 구글은 내용과 상관없이 높임과 낮춤이 무작위로 나타났다.

예)

马主任(挥挥手, 仿佛要赶开这令人烦恼的干扰): 喂, 有走的没有?
야, 나간 사람 있어?

大爷(没睁眼): 车来了?
차가 온다?

(중략)

大爷: 你倒是走不走呀? 가실래요?

马主任(沉思): 要讲过日子吧, 还是乡下小市镇上清静。别的不说, 就拿城里过个马路来说, 老爷子, 那红灯绿灯的, 你一眨巴眼, 没准就叫汽车给轧死。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시골의 작은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다. 다른 건 몰라도 도시에서 길을 건너는 예를 들자면, 노인, 빨간불과 초록불에서 깜박이면 차에 치일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구글이 번역한 ‘大爷’에 대한 ‘马主任’의 발화이다. 동일한 대상과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马主任’의 발화는 낮춤과 높임을 왔다갔다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대사에서 ‘马主任’은 ‘大爷’에게 마치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이야기하듯 아주 낮춤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듯 통일되지 않고 잘못된 경어 사용은 독자가 인물관계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주고, 극의 전개를 방해한다.

3) 소결

(1)과 (2)를 통해 기계번역에 나타난 호칭·지칭어 번역, 문체 혼용, 경어 오류, 시대 및 상황에 부적합한 번역 등을 구체적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일반명사형 및 직함형 호칭·지칭어가 다수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계번역은 동일한 원문에 대해 번역을 통일하지 못했고, 일부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혼란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았다. 이는 기계번역이 특정 명칭이 아닌 일반명사형 및 직함형 호칭·지칭어를 하나의 호칭·지칭어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시대 배경 및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어휘 선택 역시 기계번역의 문제로 나타났다. 어휘의 번역은 전체 문맥과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기계번역은 각 어휘의 사전적 의미에만 집중하였다. 문체의 혼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파과고와 구글 모두 203회와 429회라는 높은 오류 빈도를 보였는데, 이 역시 독자가 각 인물을 파악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말 경어 사용 오류는 높임말 기능을 갖춘 파과고보다 그렇지 못한 구글에서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중 상당수가 각 인물별로 경어 사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4. 맺음말

기계번역은 이미 우리 생활은 물론, 번역학계에도 매우 가까이 있다. 1장에서 언급했듯 번역 오류에 대한 연구도 많고, 번역 수업에서도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희곡을 기계번역할 때 어떠한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는 문학 번역의 기계번역 가능성을 전망함에 있어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기계번역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는 물음표이다. 특히나 문학에

대해서는 그 의구심이 더욱 크다. 그러나 기계번역의 활용 범위는 점점 확대 될 것이고, 문학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내용의 오역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희곡 『버스 정류장』의 파과고와 구글 번역 분석을 통해 다음 네 가지를 희곡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의 핵심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호칭·지칭어 번역이다. 등장인물의 이름, 혹은 극 중 호칭·지칭어는 때론 많은 것을 암시한다. 그것은 해당 인물의 성격, 신분 혹은 성별이 될 수도 있고, 결말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번역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시대 및 상황에 부합되는 표현의 번역이다. 사전적 의미에 부합된다고 해서 그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다만, 현재의 기계번역은 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번역가가 포스트에디팅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문체 또는 어투의 통일이다. 문체(어투)는 해당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감정 상태를 대변한다. 그런데 동일한 인물의 문체(어투)가 일관되게 번역되지 않는다면 독자는 인물의 캐릭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어의 사용 및 통일이다. 우리말 경어법은 복잡하고, 기계번역은 이를 아직까지 감지하지 못한다. 기계번역된 희곡의 포스트에디팅 시, 각 등장인물의 나이, 성별, 관계, 직업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 시, 오역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보가 아닌, 감정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문학 장르인 희곡에서 위 네 가지에 주목하였을 때 더욱 문학에 걸맞는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혹자는 여전히 문학번역은 기계로 대체될 수 없고, 기계번역의 품질 개선은 개발자의 몫이라 반론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계가 절대 인간번역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현재 상당한 분야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기계번역을 미래 문학번역의 보조자로 서서히 의식하고 있다. 때문에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분석하고 포스트에디팅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은 개발자의 몫일지라도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라 생각된다. 물론, 본 연구는 한 편의 희곡 작품만을 번역, 분석하였기에 이밖에 희곡의 포스트에디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보다 비판적인 태도로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분석하고, 포스트에디팅에 필요한 지침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參考文獻

- 강창석, 「국어 경어법의 본질과 체계」, 『언어와 정보 사회』, 제39권, 2020.
- 김양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혼합적 접근법」, 『문화기술의 융합』, v.8 no.1, 2022.
- 마승혜, 「문학작품 기계번역의 한계에 대한 상세 고찰」, 『통번역학연구』, 제 22권 3호, 2018.
- 배유진, 「아동문학 번역 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활용 가능성 모색 - Anne of Green Gables 기계번역 결과물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언어기술』, 제3권, 2022.
- 안미영,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차이에 따른 기계번역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포스트 에디팅방향 제안」, 『영어영문학』, 제 25권 1호, 2020.
- 양성혜, 「구글 번역기와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의 스페인어-한국어 기사 번역 오류 유형 분석」, 『스페인어문학』, 제102호,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22.
- 윤미선, 김택민, 임진주, 홍승연, 「영어-한국어 언어쌍에 적합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번역학연구』, 제 19권 5호, 2018.
- 엄종관, 「한국어 호칭어, 지칭어에 관한 고찰」, 『우암논총(牛岩論叢)』, Vol.41, 31-42, 2019.
- 최윤영, 「기계번역과문학번역」, 『번역연구』, 제 4집, 1996.
- David Vilar, Jia Xu, Luis Fernando D'Haro, Hermann Ney, "Error Analysis of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Output", Lehrstuhl für Informatik VI - Computer Science Department, 2016.
- Sara Stymne, "BLAST: A Tool for Error Analysis of Machine Translation Output", Linköping University, Linköping, Sweden, 2011.
- 林瑞艳, "行走着的“等待”——简析高行健《车站》", Forum of Arts. 2008(11).

*참고자료

- 가오싱젠, 오수경 옮김, 『버스 정류장』, 민음사, 2002.

Abstract

A Study on Machine Translation of Dramas — focusing on character of Drama “The Bus Station”

Kim, Ji Eun

The use of machine translation is becoming more common, and the quality of the translations is steadily improving, sparking ongoing discussions in academia on the utility of machine translation. However, skepticism remains on the evaluations of machine translation performance. Notably, many voices insist literary translation is an area where replacing human translators with machines would be difficult. If so, then how well do machine translations work with dramas, a literary genre relatively close to everyday conversational forms? Unlike novels and poetry, dramas are meant to be both read and acted out, and the characters' lines are written in a form that resembles everyday conversation. Thus, the translation task hinges significantly on an understanding of literary expression as well as individual character traits. Importantly, the Korean language employs much inflection and has developed numerous honorifics, so the translation must be preceded by a clear grasp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haracters in the story. This study compares existing Korean translations of three leading Chinese one-act plays—The Bus Station—with the translations produced by Naver Papago and Google Translation, and then seeks to identify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machine translation with respect to drama.

Key words : sentence-terminating ending, machine translation, Naver Papago, Google Translation, drama translation, Chinese-Korean translation, The Bus Station

투 고 일 : 2023. 4. 10. / 심 사 일 : 2023. 4. 15. ~ 2023. 5. 15. / 게재확정일 : 2023. 5. 20.